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4호 [루게 제24962호] 주체104(2015)년 7월 3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황병서 동지, 김정관 동지와 해당 부문의 일군들,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4월 최첨단과학기술 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의 사업을 료해하시고 연구소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과학연구기지로 새로 건설해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위치도 잡아주시였으며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우도록 연구소형성안을 여러 차례나 지도해주시였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동원시켜주시였을뿐 아니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지난해 11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낮과 밤을 이어가며 결사전을 벌임으로써 짧은 기간에 연구소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연건축면적이 7,130여㎡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된 원형식기본청사와 4층으로 된 보조건물로 이루어져있다.

대학과 집에서 가까운 곳에 궁궐같은 연구소를 건설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천어비이사람이 너무도 고마워 걱정을 누르지 못하고있는 연구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삼가 인사를 올리는 연구소의 책임일군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동실들을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연구사들이 연구사업과 학습을 잘할수 있도록 도서열람실과 전자도서관, 록화물시청체계도 더욱 원만히 갖추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과학과 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나라가 흥한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가 최첨단연구기지답게 꾸려진 것만큼 연구소운영에 필요한 설비들과 료전기재들도 현대적인것으로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문제는 당에서 직접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정말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연구사들이 새로 일떠선 연구소에서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되였다고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동화 연구소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당에서 비준해준 형성안의 요구대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연구소를 잘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멋쟁이건축물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원형관통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형식이 새롭고 특색있다고 하시면서 최첨단연구기지로써의 체모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우리 당의 과학기술 증시정책, 인재증시정책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연구사들의 과학연구사업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게 일떠세웠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는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손색이 없다고 하시면서 독창성, 편리성이 철

저히 구현되었을뿐 아니라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경지에서 실현된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자연채광에 의한 조명시간을 늘이고 태양열을 최대한 흡수할수 있도록 건물지붕을 유리건재로 마감한것을 비롯하여 에너지를 소비를 극력 낮출수 있게

태양열, 지열에너지를 적극 리용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건설에서 명에너르기, 평탄소건축방향으로 나아갈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했다고 하시였다.

연구실, 실험실, 회의실, 과학평의회실, 응접실, 사무실, 침실, 식사실, 목욕탕, 운

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정말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연구사들이 새로 일떠선 연구소에서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되였다고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땅에 과학기술로 흥하는 전하제일 인정신을 높이 발휘한 조선인민군 장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제407군부대, 제101군부대 군인 당의 의도를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 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우리 당 위업을 받들어온 지난날의 전통을 이어 최첨단들 발휘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당우에 과학기술로 흥하는 전하제일 인정신을 높이 발휘한 조선인민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책공업 파전의 기술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함 본사정지보도반

##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 결성식이 6월 27일 바젤에서 진행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제르가 선출되였다.

결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여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아만적인 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를 해방하시였으며 그해 10월 10일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조선은 인민의 락원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구현된 불멸의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진보적인 류와 스위스의 김일성-김정일주의신봉자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을 조선인민과 함께 성대히 경축할것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는 이날들을 해방 맞으며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7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리며 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승리와 영광을 떨쳐온 우리 당의 역센 뿌리

###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결성 8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력사와 전통이 즐거이 이어지고 끝없이 빛나는 이 땅우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가 뜻깊게 아로새겨지고있다.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그 력사적뿌리가 마련되고 모체적의 의를 가지는 첫 당조직이 결성된 때로부터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온 조선로동당!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변영의 한길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의 자랑찬 행로를 되새겨볼수록 우리 당의 시원인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결성되던 력사의 그날이 더욱 가슴뜨겁게 일어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신 주체혁명의 력사이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85년이 되는 년월이 새겨지고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귀천에는 진명학교의 수수한 교실에서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던 10대의 백두산청년장군을 우리러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던 열혈청년투사들의 환희의 웨침이 력사의 메아리가 되어 들린다.

우리의 배는 항구를 떠났다. 우리는 격랑을 헤치며 먼바다로 노를 저어간다는 내용의 즉흥시를 읊으며 저저마다 첫 당조직 결성기쁨으로 배흥을 쏘고있다고 격정의 열변을 토로하던 열혈의 혁명가들,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조선의 당원으로 시대와 력사앞에서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칠 맹세로 가슴끓이며 희세의 친출위인을 모신 끝없는 영광과 기쁨을 활화산처럼 터치던 열혈청년혁명가들의 모습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후날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결성되던 력사의 그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때 첫 당조직의 결성을 기념하여 전통이 아니라 대포라도 쏘고싶은 심정이었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그 이롭도 빛나는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이 소박한 명칭에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의 길을 개척하고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발전시키며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시려는 백두산위인의 숭고한 의지가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었는가.

우리 당의 타이머 켜졌!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결성된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10대의 그 시절에 벌써 당의 기층조직을 내오고 확대하는 데서 모체로 되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여 주체혁명의 혁명적당 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결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비범한 예지와 절충한 령도력, 한없이 교대한 인격을 천품으로 지니신 결세의 위인, 일찌기 주체의 신념과 의지를 불멸의

것으로 체현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적위업이었다.

시대와 교조가 강물처럼 범람하고있던 그때 이제 겨우 투쟁의 첫걸음마를 댄 새 세대 열혈청년들로 혁명적당조직을 내온다는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의 기적이였으며 10대의 젊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정치적령도력, 위대한 인력의 일대 과시였다.

자주적인 당건설을 위한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은 항일대전의 도도한 흐름을 타고 더욱욱 즐기치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활동에 의하여 첫 당조직이 결성된 얼마후에는 온성일대의 혁명조직핵심성원들로 국내당조직이 무어졌으며 짧은 시일안에 무장대와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 북부조선일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무성하게 태어나게 되였다.

그후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되어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은 물론 국내당조직들까지 장악되도록 됴므로써 우리 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체계는 더욱 정연하게 확립되게 되였다.

간고한 항일혁명의 나날에 이룩된 이런 고귀한 성과와 경험에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해방후 투쟁과 못되는 짧은 기간에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정경 20세기 역경의 순간마

다에서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혼란속에서도 자그마한 로선상착이나 탈선을 모르고 필승의 한길로 혁명을 이끌어온 우리 당의 년대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령도의 력사로 빛을 뿌린다.

깊고 역센 뿌리를 가진 나무는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다. 우리 당이 70년의 장구한 세월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끝없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었던것은 그 력사적뿌리가 깊고 역센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의 위황찬란한 미래도,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도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에 의해 담보되였다고 우리는 긍지높이 말한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성원들은 불과 10명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당원들의 수는 수백만을 헤아린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당원들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결사적인 맨 앞장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전정의 승리를 안아왔다. 제가루만 훑날리던 빈터우에서 맨손으로 트랙트와 전기기판차를 만들어내며 이 땅에 천리마의 시대를 열치는데 앞장선 사람들도 다름아닌 우리 당원들이였다.

준엄한 혁명의 년대마다 당과 수령을 받들어 이 땅에 인민이 주인된 주체의 사회주의를 보란듯이 일떠세운 조선로동당원들의 미려운 모습은 오늘날도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성원들을 그려보게 한다.

그리고 그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선군시대를 빛내이고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의 강성국가를 기어올리며 세계를 강철의 의지와 열정을 북돋아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정치의 위력으로써 더욱 강해지고있으며 당원들은 어제날 건설동지사성원들의 모습으로 선군시대의 앞장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피를 뿜고 있다.

그렇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빛은 오늘날도 빛날것이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승리적행로에서 세차게 뉘러는 건설동지사의 맥박과 숨결은 언제 한번 떠진 적도 벗어본적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수령님을 수는 수백만을 헤아린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당원들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결사적인 맨 앞장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전정의 승리를 안아왔다. 제가루만 훑날리던 빈터우에서 맨손으로 트랙트와 전기기판차를 만들어내며 이 땅에 천리마의 시대를 열치는데 앞장선 사람들도 다름아닌 우리 당원들이였다.

준엄한 혁명의 년대마다 당과 수령을 받들어 이 땅에 인민이 주인된 주체의 사회주의를 보란듯이 일떠세운 조선로동당원들의 미려운 모습은 오늘날도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성원들을 그려보게 한다.

본사기자 강철 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부준부라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뵘 에 르 쿠룬 지 자 각 하**

나는 부룬디독립 53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경제발전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6월 30일 평 양

듀 니 스

듀 니 지 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알 바위 까 이 드 앳 씌 씨 각 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얻은 레포사건으로 수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비통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테로를 반대하고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귀국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와 연대성을 확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7월 1일 평 양

#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 황해남도 물길공사장에 서

### 집단적기술혁신으로 완공의 날을 앞당기리

#### 황해남도 물길공사 중앙지휘부 일군들과 나누는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명운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당창건 일흔둘을 자랑할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황해남도 물길공사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변일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우리는 얼마전 물길공사중앙지휘부의 일군들을 만나 1단계 물길공사진행정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황해남도 물길공사 1단계 진행정황에 대하여 알고싶다.

국장 우기홍: 뜻깊은 올해에 농산과 축산, 수산물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가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특히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것은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우리 나라의 주요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서 농사를 잘 지어야 나라의 쌀독을 채울수 있다. 그러자면 황해남도의 물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천리해안의 예지로 통찰하시고 황해남도에도 대규모의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지난 기간 개천-태성호 물길을 비롯한 물길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우리 돌격대에 이 공사를 통해 맡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물길건설자들을 굳게 믿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단번에 완공할 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펼쳐나선 우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갈 결사의 각오를 안고 펼쳐나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왔고 성과를 거두었다.

저장 김경호: 황해남도 물길1단계공사의 규모는 방대하다. 하지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배두의 혁명정신, 배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단하는 애로와 난관을 맞아가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그러하여 기본적수지정도공사는 4개월까지, 장식공사는 6월중순까지 완전히 끝내

으며 무던이엔제공사를 본래있게 내밀고있다. 또한 지난 4월 말까지 많은 대상공사를 끝낸 자강도려단을 비롯하여 물길공사장을 끝내는 단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현재 물길공사실적은 75%계선을 넘어섰으며 흙출토율은 65%, 구조물공사는 54%계선을 돌파하였다.

기자: 물길공사중앙지휘부의 작업에서 주목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국장 우기홍: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10월의 대추전담 22만㎡의 토량을 골짜기하지 않고 많은 세멘트와 모래, 17의 철근을 쓰지 않으면서도 공사를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저장 김경호: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에서 앞선 건설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본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애로와 난관을 과학기술을 앞세워 극복하는 데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민중과 함께 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들이고 있는 데 있다.

기자장 송영규: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분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막대한 열매를 수확하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

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결과 공사를 줄이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여 공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황해남도려단 참모장 리원찬 동무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책임일군인 창안한 《기초물길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물매결정에 대하여》 한가지만 놓고보자. 이 방법이 도입되어 22만㎡의 토량을 골짜기하지 않고 많은 세멘트와 모래, 17의 철근을 쓰지 않으면서도 공사를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저장 김경호: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에서 앞선 건설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본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애로와 난관을 과학기술을 앞세워 극복하는 데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민중과 함께 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들이고 있는 데 있다.

기자장 송영규: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분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막대한 열매를 수확하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

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결과 공사를 줄이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여 공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황해남도려단 참모장 리원찬 동무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책임일군인 창안한 《기초물길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물매결정에 대하여》 한가지만 놓고보자. 이 방법이 도입되어 22만㎡의 토량을 골짜기하지 않고 많은 세멘트와 모래, 17의 철근을 쓰지 않으면서도 공사를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저장 김경호: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에서 앞선 건설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본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애로와 난관을 과학기술을 앞세워 극복하는 데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민중과 함께 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들이고 있는 데 있다.

기자장 송영규: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분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막대한 열매를 수확하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

## 황해북도 려단에서

###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에서 요구성의 기준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입니다. 일군들은 무엇을 하냐 건설하여도 이쯤하면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요구성을 높여 모든 건설대상을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수준, 세계적 높이에서 이룩하기 위하여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신바와 같이 건설에서 요구성의 기준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공사속도를 높이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일군들이 무엇을 하나 건설하라고 이따금씩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일군들이 무엇을 하나 건설하라고 이따금씩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나보는 과정에 스톱치날수 없는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었다. 콘크리트는 시간이 걸리질수록 잠관공사에서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황해북도 물길을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만년백년의 창조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때문이었다. 이것이 협의에 상정되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나라의 전기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이때 려단장 부장의 힘 있는 목소리가 울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신것처럼 건설에서 요구성의 기준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공사속도를 높이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일군들이 무엇을 하나 건설하라고 이따금씩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일군들이 무엇을 하나 건설하라고 이따금씩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에 사색을 이어나가며 서로의 지혜를 합쳐나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발동발전기로 혼합기를 돌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때 려단의 한 시공원이 충정을 같이 맞들어서 혼합물을 나르지 말고 바퀴가 하나인 손발차를 리용하자고 하였다. 손발차가 오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발판을 설치하면 더 많은 혼합물을 나를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 콘크리트는 시간을 얼마든지 단축할수 있었다.

이것은 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발동발전기를 설치하고 손발차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산악같이 펼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현장에서 침식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였다. 《나를 따라 앞으로!》의 돌격구호소리 높이 일군들은 대외의 압박에서 떨리면서 화성정지시작음을 힘있게 벌렸다. 돌격대원들도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전에는 작업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공사장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되었다.

이들의 경험은 공사의 질은 그 어떤 기술수단에 의해서 담보되는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 해도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거머 잡아내겠다는 일군들의 사상관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 강도려단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우차를 잘 가려 증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혁명적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리는 이 두가지 문제 중 어느것을 먼저 해야 하겠는가. 이것은 강도려단 려단장으로 사업계획된 혁명철동우앞에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자신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 강도려단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우차를 잘 가려 증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혁명적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리는 이 두가지 문제 중 어느것을 먼저 해야 하겠는가. 이것은 강도려단 려단장으로 사업계획된 혁명철동우앞에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자신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 강도려단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우차를 잘 가려 증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혁명적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리는 이 두가지 문제 중 어느것을 먼저 해야 하겠는가. 이것은 강도려단 려단장으로 사업계획된 혁명철동우앞에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자신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능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이것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있었다.

## 건설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들

황해북도려단 평산군대대장 리광준동무는 실력가형의 일군이다. 황해남도 물길공사에 동원되어 오늘까지 자신의 깨끗한 망



리광준동무, 시광준동무, 김복룡동무

하고 대외의 양장에서 이신작업하면서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킨 그의 노력이 크게 결실을 얻었다.

오늘날 그는 당창건 일흔둘을 높은 로력적성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광강도려단 기술소대 서광현동무는 일일수업이 많은 소대장이다. 자기에게는 능수능민 기술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압축

심을 바쳐가고있다. 대개 언제나 전투력있는 단위로 되고있는 자랑속에는 작업과제수행을 위해 부족되는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

하고 대외의 양장에서 이신작업하면서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킨 그의 노력이 크게 결실을 얻었다.

오늘날 그는 당창건 일흔둘을 높은 로력적성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광강도려단 기술소대 서광현동무는 일일수업이 많은 소대장이다. 자기에게는 능수능민 기술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압축

심을 바쳐가고있다. 대개 언제나 전투력있는 단위로 되고있는 자랑속에는 작업과제수행을 위해 부족되는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

하고 대외의 양장에서 이신작업하면서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킨 그의 노력이 크게 결실을 얻었다.

오늘날 그는 당창건 일흔둘을 높은 로력적성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광강도려단 기술소대 서광현동무는 일일수업이 많은 소대장이다. 자기에게는 능수능민 기술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압축

심을 바쳐가고있다. 대개 언제나 전투력있는 단위로 되고있는 자랑속에는 작업과제수행을 위해 부족되는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

하고 대외의 양장에서 이신작업하면서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킨 그의 노력이 크게 결실을 얻었다.

오늘날 그는 당창건 일흔둘을 높은 로력적성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광강도려단 기술소대 서광현동무는 일일수업이 많은 소대장이다. 자기에게는 능수능민 기술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압축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유엔아동기금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2일 주조 유엔아동기금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인류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업적을 쌓으셨으며 탁월한 사상과 평등도 세계자를 위한 유엔아동기금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 영웅의학자와 녀성일군이 받아안은 뜨거운 은정

위대한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혁명전사들의 값있는 삶은 끝없는 행복과 영광의 절정을 빛을 뿌리고있다. 얼마전 하연빈씨, 일흔번째 생일을 맞이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강좌장 김진수와 평양시농근맹위원회 허덕씨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았다.

파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두고 그러도 만족해하시며 김일성상세판인, 로력영웅의 값있는 칭호도 얻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영평의 대회에 대표로 불러주시고 대를 두고 같이 전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그는 복덕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덕이 있고여 복이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덕복이라고 불리우시며 한몸에 안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수심만큼 하루와 같이 농업부문에 성실하게 일해왔다.

해방전 피눈물을 흘리며 다니던 학교마저 중퇴하지 않았던 안도빈은 빈농민인 아들인 김진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신 고마운 조국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워 인사, 교수, 박사로서 성장하였으며 어머니장군님의 보살핌속에서 복된 삶을 누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녀 시절 분조장으로 일하던 그와 남다른 인연을 맺으신 때부터 친지지도의 곁에서, 중요대회장에서 자주 만나주시어 인연을 위해 더 많은 일군을 하라고 고무해주시며 이른 은정을 부여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쌀로써 우리 당을 총직하게 만들어온 그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거듭 안겨주시며 결속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그러나 감격과 격정속에 생일상을 받아안은 김진수, 허덕씨와 가족, 친척들은 날이 갈수록 더 해방되는 대해같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총정대해 높이 받들어모시고 열의에 넘쳐있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한

###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이 2일 대안구역에 높이 모신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었다. 리원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판계부, 직맹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후손대대에 길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직맹원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열의와 맹세를 심장에 새기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는데 온갖 지성을 다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강조하였다. 이어 남포시직맹위원장 김순철, 대안구역계원위원장 김재민 양승호, 김경숙영양사공장 로동자 한광희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나대고조전투장마디에서 조선 김대태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배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집단적정열을 세계적 열기로 발전시키는 데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참다운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직업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로동계제를 철저히 세우고 동맹을 영원히 당의 평등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1돐을 맞이하는 온 나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혁명생애를 숭영히 돌이켜보시고

그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대대로, 장군님대대로 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다 김일성정신, 김정일조선의 운명이고 김대태하여 언급하였다. 김대태하여 언급하였다. 김대태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다 김일성정신, 김정일조선의 운명이고 김대태하여 언급하였다. 김대태하여 언급하였다. 김대태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다 김일성정신, 김정일조선의 운명이고 김대태하여 언급하였다. 김대태하여 언급하였다. 김대태하여 언급하였다.

# 아동그림책창작에 재능과 관심을 묻는 훌륭한 미술가, 교육자부자

## 교육신문사 기자 장운섭, 교육도서출판사 기자 장대길동무들의 애국적소행에 대한 이야기

미술가라면 대형화폭에 세계적인 명화를 새기는 예술가가 되기를, 교육자라면 영웅 제자, 박사제자를 수많은 키워내는 이름있는 교원이 되기를 소원한다.

어린 이교육교양의 귀중한 교과서인 《백두산위인들》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그림책)〈전 60권〉을 비롯하여 수많은 동화그림책과 어린이지능개발도서들을 창작한 장운섭, 장대길동무들도 미술가들이며 교육자들도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식이 없이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라야 하며 자기 개인보다 당과 혁명을 먼저 생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 보이지 않는 교단의 선생님

꽃잎처럼 작은 손이 그림책을 펼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단이 숨어서 솟아오른다. 초롱초롱한 눈빛이 모자하는 그 교단에서는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강의가 시작된다. 듣고들어도 더 듣고만있는 구수한 옛말, 보고 보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 황홀하고 멋진 그림, 알쏭달쏭한 수수께끼와 흥미있는 지능문제풀이 웃음이 절로 나는 유모야, 환상적인 우주세계와 생활속의 다양한 인간관계, 사회적규범을 담은 자기자신의 이야기들...

이 교단에서의 폭넓고 다양하며 친절한 강의를 마다하는 아이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말과 글을 깨치지 못한 어린아이들도 좋아라 찾아드는 교단, 어른이 된 뒤 후날에도 즐거움 추억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첫 시절의 이 교단에 장운섭, 장대길동무들과 같은 아동그림책창작자들이 조용히 서있다.

그들은 아이들이 모르는 선생님, 학부형들조차 다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교단의 교원들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장운섭동무는 금성청년출판사 그림책편집부 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때 장운섭동무는 평범한 미술가인 내가 왜 해내겠는가고 걱정이 앞섰다. 이른바 미술가가 되려면 꿈과 열어야는것만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에게 한 일꾼이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이들의 괴교양과 관련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면서 동화, 우화그림책을 많이 만들에 대하여 강조하신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드는 부서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재능있는 미술가들과 문학편집원들이 선출되어 왔다.

장운섭동무의 가슴은 세차게 열렸다. (수령님께서는 장군님께서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시는 아이들을 위한 일에 나의 꿈도 한생도 바치자.)

이렇게 그는 보이지 않는 교단의 선생님인 아동그림책창작자의 길에 나선 아들 장대길동무가 첫 그림책 《토끼와 코끼리》 초안을 내놓을것이었다.

토끼의 귀와 코끼리의 코가 늙어난 이야기를 의인화의 수법으로 재미있게 엮은 그림책 초안을 마추한 장운섭동무는 자기가 첫 그림책을 만들던 때처럼 가슴이 설레었다.

그는 심사자의 눈으로 아니 아이들의 리없이 맑은 마음이 되어 그림책초안을 한창 한창 번저나갔다.

이제 그는 아들을 불러있었다.

《토끼는 착한 짐승이다. 그 성품이 결코 슬에 없어야 한다. 그래야 어린이들이 그림판 보고도 토끼가 착한 짐승이라는걸 알 수 있다.》

장대길동무는 아동그림책은 그저 미술작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사물현상의 특징과 원리들을 보다 흥미있게 알려주는 일종의 교재이다. 그렇기때문에 실물과 같이 생동하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맞게 그려야 한다. 그러자면 미술가이자 전에 교육자가 되고 그림책창작자가기 전에 아동심리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다.

수정작업에 달려있는 장대길동무는 손을 붓을 놓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심리를 환히 꿰뚫어 줄 수 있겠는가 하는데로 쏠렸다.

며칠후 장대길동무는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은 한 유치원으로 향했다. 그 유치원에서 오래동안 일한 교양원 만나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했다.

《아이들의 그림책을 만들자니 제가 아이들마음이 되어야 하겠기에 그러한다.》

이렇게 절절히 이야기하는 그의 청을 교양원은 마다할수 없었다.

그후 장대길동무는 자주 유치원에 찾아가다. 유치원 어린이들과 나란히 작은 길상에 앉아 교양원의 설명을 귀담아들기도 하였으며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아이들의 귀여운 말과 행동도 주의깊게 관찰했다. 아이들에게는 어떤 말이 쉽게 통할까, 아이들에게만 고유한 생각과 행동은 어떤것인가, 아이들의 기쁨과 슬픔은 무엇으로 표현되며 서로 다른 성격특질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비롯하여 아이들의 일거일동은 물론 겉으로 내비치지 않는 속셈까지도 깊이 파고 들었다.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그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할줄 알아야 합니다.》

장운섭, 장대길동무들에게는 세계적인 예술가, 명망높은 교육자도 머러속인 훌륭한 꿈이 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대대손손 세상에서 제일 고운 꿈을 꾸기를, 그 무수한 꿈이 활짝 꽃피고 강성조선의 천만년미래가 빛나기를!

그것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고 대를 이으며 재능도 명예도 랑심도 아낌없이 묻어가는 미술가부자!

강성조선의 기둥같은 아이들의 귀중한 명거물이 되어 남모르는 위훈의 길을 걷는 그들이야말로 참된 애국자, 혁명가들이다.

의 걸음은 집아근을 벗어나 시안의 여러 탁아소, 유치원들로 이어졌다. 이 나날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교학팀 미항동무와 사동구역보육원학교 교장 최영희, 만경대구역 당상1유치원 교양원 박옥성동무들과 같은 탁아소, 유치원부문의 모범적인 일꾼들과 교양원들이 그의 창작활동의 적극적인 방조자로 되었다.

아동그림책창작에 쏟아부은 장운섭, 장대길동무들의 불같은 열정과 헌신의 기초에는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그들의 리없이 깨끗한 광심이 놓여있다.

몇해전 중앙동물원의 한 기술일꾼은 동물원의 맹수사육에서 화관을 깨고 올라가 락하는 장운섭동무와 장대길동무를 보게 되었다. 며칠째 눈에 뜨이는 모습들이었다. 기술일꾼이 다가가 무슨 일인가고 묻자 그들은 딱한 표정을 지었다.

《성난 호랑이를 그려야 하겠는데 호랑이들이 너무 점잖아서 그러한다.》

기술일꾼은 말해주었다. 지금은 여름철이어서 무더위가 가신 이른새벽에 보면 호랑이 호랑이가 위세를 떨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그들이 이른새벽에 정말 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이른새벽 동물원구내를 돌아보면 그는 동이 뜨기 전부터 맹수사육에 와있는 미술가부자를 만나게 되었다.

차고 시원한 대기속에서 그들이 인사를

### 지성의 나라를

수십년전 그림책창작가가 된 장운섭동무는 일요일이면 수도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책방들을 돌아보는것을 하나의 즐거움 휴식으로 여겼다. 거기에 가면 새로 나온 아동그림책에 대한 아이들의 수요와 반응을 알 수 있었던것이다. 그속에는 그가 만든 그림책들도 있었다. 어느날 그가 책방앞에 가서 이르렀는데 몇몇 아이들이 쾄하니 말을 지나 책방으로 달려들어갔다. 이어 안에서는 환성이 터져나왔다. 《야, 새 그림책!》

장운섭동무도 책방에 들어섰다. 아이들은 벌써 새 그림책을 받아들고 오구구 모여서서 그것을 펼쳐보느라고 야단이었다. 어떤 애들은 좋다고 깔깔거렸고 또 어떤 애들은 무슨 영문인지 코살을 찡긋했다.

이때 제일 나이 어린 처녀가 그림책앞으로 바투 다가들며 조그만 손가락으로 그림책장의 한 그림을 꼭 짚었다.

《오빠, 이게 강이지?》

알아맞춘것을 빼기는듯 한 그애의 말에 오빠인듯 한 총각애가 《강이건 뭐야, 노루지.》 하고 흥을 주었다. 그러자 처녀애는 금방 울먹이며 웅했다.

《아니야, 강이지야.》

《그르면 가만 있어.》 하고 소년이 옥박지르자 처녀애는 그만 엉-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처녀애는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연신 닦으며 항변했다.

《강이지야. 울 할머니네 집에 있는 그 강이지야.》

장운섭동무는 그애한테로 다가갔다. 그가 한참 일러서야 처녀애는 울음을 그쳤다. 그애에게 장운섭동무는 물었다.

《그림책의 《강이지》가 너희 할머니네 강이지와 뭐가 같니?》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아저씨에게 처녀애는 속설거렸다. 《귀랑, 말이랑...》

장운섭동무는 그 그림책을 사들고 돌아왔다. 정말 문제의 그림은 강이지에 비해 귀가 뾰족하고 앞다리가 삼뿔만 노루의 특징을 잘 살리지 못하고있었다.

(아이들에게 사물현상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심어주는데서 그림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누구의 설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보는 즉시에 단번리해를 할수 있게 하려면 창작자의 높은 지성과 실력이 요구되었다.

장운섭동무는 자기가 이미 잘 알고있다고 생각한 대상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물현상의 특징을 다시금 하나하나 정철하고 파악해나갔다. 그것은 시간과 종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창작자의 잘못된 인식과 반영이 순진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기는 그늘과 공백이 어떤것인가를 생각하며 근기있게 해나갔다.

《그림책창작자의 그림은 종이나 화판우에 가 아니라 백지장보다 더 깨끗한 아이들의 마음과 뇌리에 새겨진다.》

장운섭동무는 수십년간 아동그림책창작

나누는데 별안간 우리안에 걸게 드러누웠던 조진필이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따웅!》하고 사납게 울부짖었다. 쇠기둥같은 앞발로 바닥을 부실듯 땅- 내리친 호랑이는 그 무엇이든 눈앞의것을 단숨에 삼켜버릴듯 창상같은 수염이 뼈죽뼈죽 내뿜은 아가리를 썩 벌리는것이였다. 그러자 날카로운 이발들이 통째로 드러나며 그사이로 시뻘건 혀가 쭈 나왔다. 화들짝쳐떨리게 부릅뜬 두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펄펄 일었다.

장운섭, 장대길동무들은 그 모양을 부지런히 화판에 옮기었다. ...

회색이 만연하여 맹수사를 떠나가는 그들의 기술일꾼은 뜨거운 눈빛으로 바래왔다. 그가 조선미술박물관이나 국가미술전람회같은데 가면 이미 창작된 노력의 호랑이가 그림도 많았는데 아이들의 크지 않은 동화그림책 한두페이지를 위해 몇몇번이나 걸음을 하는가고 하였을 때 장운섭동무가 한 말이 그의 귀를 울리고있었다.

《바로 아이들이 볼 그림책이니까요.》

후대들에게 한없이 성실한 그들안에 기술일꾼은 머리가 숙여졌다.

아마도 그가 장운섭동무가 여러해전에 다른 동화그림책을 창작할 때 이미 이곳에서 성난 호랑이그림을 여러장이나 그렸었다는것과 그 그림들이 아직도 그의 화판에 간수되어있었다는것을 알았더라면 더욱 놀랐을것이다.

보이지 않는 교단에 바치는 장운섭, 장대길동무들의 진정과 헌신은 이렇듯 열렬하고 순결한것이다.

아이들이 좋아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단방 치기쟁이를 그 어떤 법칙심사에 못지 않게 심각히 받아안곤 한 장운섭동무와 장대길동무.

수많은 미술가들이 조선미술박물관이나 국가미술전람회장에서 자기 그림을 감상하는 못사람들을 보며 남다른 희열에 잠길 때에도 그들은 공원의 의자에서, 집집에서 울음줄달린 아이들이 그림책에서 눈길을 못 떼며 《아이, 재미있네!》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인민의 가장 소중한 목소리, 조국의 값높은 평가로 가슴뿌듯이 새겨안으며 보람찬 삶의 길을 쫓듯이 걸어왔다.

그 소박한 모습에 참된 교육자, 훌륭한 예술가의 모습이 비껴있는것 아닌가.

### 달아주는 손길

에서 얻은 진리를 이렇게 집약하여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장대길동무 역시 10여년간의 창작생활에서 또 하나의 지름을 찾았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은 어린시절에 어떤 그림책을 읽지만큼 보았는가 하는데도 적지 않게 오르내린다.》는것이다.

수많은 아이들과 친교를 맺고있는 그는 여섯살밖에 안되는 어린이들이 우리 나라의 력대 왕들과 개국공신들, 대 국가의 생존대대들을 빼집김에 기억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고 물었다더니 어린이들은 《그림책에서 봤어요.》라고 한결같이 대답하는것이였다. 그림책에서 한번 본 수수와 사실들이 사진기로 찍은것처럼 그때들의 머리속에 남은 것이다.

장대길동무는 흥분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이렇듯 훌륭한 우리 아이들의 두뇌를 채워주기에는 아동그림책창작자인 나의 지식이 너무나 모자라지 않겠는가.)

그림책창작을 위한 장운섭, 장대길동무들의 사색과 탐구생활은 아동심리학을 넘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총체라는 광활한 세계로 뻗어나갔다.

연제인가 장대길동무의 중학시절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오면서 친구는 책상에 가득 쌓인 수학, 물리학, 화학참고서들과 여러종의 신문, 잡지들, 외국어로 된 도서들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새 전공을 바꿨나? 동무전공이야 원래 미술이 아닌가?》

장대길동무는 책상우의 책들을 손으로 빙 둘러 가리키며 말했다.

《그때 미술이지. 하지만 이것도 다 내 전공이야.》

자라나는 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온 세상의 문명을 다 배워주고싶고 그들을 하루빨리 인류가 도달한 최첨단의 지성세계에 올려세우고싶은 마음으로 날과 달, 순간순간을 불태워온 장운섭, 장대길동무들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몇해전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체대회 6대 총서 강성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대회에 초청하신 축하연설의 구절구절이 뜨겁게 울리고있다.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은 소년단원동무들의 성장증에 먼저 그러지게 됩니다.》

세상을 놀래운 앞날의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도 바로 우리 소년단원들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축하연설을 받아안으며 온 나라의 교원들과 학부형들이 감격에 울었다. 장운섭, 장대길동무들도 눈금을 적시었다. 그들은 한가지의 할아버지, 아버지조차 아니라 온 나라 어린이들의 보이지 않는 교단에 선 교육자들로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에 매혹되었고 평생의 과제를 받아안

았다.

우리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를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그림책을 만들자!

그들의 목표는 이렇게 웅대해졌다.

어떻게 하면 그림책 한페이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하겠는가. 학생소년들이 작은 그림책과 더불어 현대문명인, 지성인, 세계적인 발명가로 속속 성장하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사색과 탐구를 이어갔다.

그들자신부터 배워야 할것, 알아야 할것이 얼마나 많았단가. 조선대백과사전과 조선말대사전, 과학기술대사전 등 수많은 책과 여러 과학기술분야들을 자기들의 필수적인 독과대상으로 정한 그들은 하루를 시간으로가 아니라 분으로 나누고 초로 쪼갰다.

피라고도 즐긴한 노력에 의해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분야의 수많은 지식들이 그들의 머리속에 차곡차곡 쌓였다.

장대길동무가 짧은 기간에 컴퓨터를 리용한 그림책제작 및 편집기술을 높은 수준에서 습득하고 여러 어종의 외국어실력을 갖추게 된것도 남다른 목표를 내세우고 분투한 결과였다.

그림책창작과정에도 한두페이지의 그림과 글을 위해 평균 4~5권에 달하는 책을 보고 어떤 때에는 수십권의 책을 눈에 띄게 지도록 읽고 손목이 시도록 자료를 발

### 아버지와

장운섭동무가 그림책편집부 부장으로 임명되어 그림책을 만드느라고 뛰어나다 할 장대길동무는 10대 초엽의 소년이었다. 그는 아버지더 부에서부터 만든다는 그림책을 이겨내려왔다 거다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주 출장을 떠났다.

그것이 의미해한 대결이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진 왜 그림책을 안 만들고 출장만 가나요?》

《아버진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림책을 만들려고 한단다. 그러니 좀 기다려라.》

그 말에 대결의 얼굴은 대뜸 밝아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네가 만든다는 그림책이 어떤것일까 하는 생각이 감돌았다.

장운섭동무 역시 자기들이 만드는 그림책에 무엇을 담겠는가 하고 생각이 많았다. 우리 민족이 먼 옛날부터 전래오는 구전설화를 담아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작동화를 형상할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소년빨찌산들의 이야기 는 또 어떨까.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만난 항일투사에게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옛이야기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들려주신 옛말, 바로 그것이다.)

후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백두산위인들께서 들려주신 옛말을 그림책에 담을 생각을 하였는가고 물었을 때 장운섭동무는 우리 아동들의 가장 훌륭한 스승들이신 그분들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들에게 담고싶은 마음을 담았는 가, 그 이야기들을 그림책으로 만들면 수천권의 세계명작동화집보다 낫지 않겠는가고 대답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에게서 그가 들은 이야기들은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것이었다.

한 항일투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머슴을 살다가 유격대에 들어온 한 신입대원이 자산계급과도 손을 잡을때 대한 통일전선노선이 잘 리해가 되지 않아 위대한 수령님께 직접 물어본 일이 있다고 한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세 포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머슴을 살다가 유격대에 들어온 한 신입대원이 자산계급과도 손을 잡을때 대한 통일전선노선이 잘 리해가 되지 않아 위대한 수령님께 직접 물어본 일이 있다고 한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세 포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 포수가 호랑이를 잡으러 산으로 떠났다. 그들은 호랑이를 만나면 절대로 덤비지 말고 누구는 골통에, 누구는 심장에, 누구는 발목에 총탄을 쏘아박자고 철석같이 약속하였다. 여러날의 고생끝에 드디어 호랑이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세 포수는 저마다 혼자 잡아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저마다 제가 잡겠다고 싸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몰까더니 바라보면 호랑이는 어리서는 싸움에 기운이 다 빠진 세 포수를 한명한명 집어삼켰다.

이야기를 마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세 포수가 악당도 마음을 맞추어 총을 쓰았더라면 호랑이를 잡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단결은 승리이고 분별은 죽음이라는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었다.

(아, 얼마나 위대한 인간이신가.)

백두의 설한공속에서 유격대원들과 무를 마추하고있던 혁명투쟁의 원리를 통속적인 옛말에 담아 구수하게 설명해주시는 강철의 명장의 위인적품모가 금시 눈앞에 안겨와 장운섭동무의 눈시울은 저도 모르게 젖어들었다.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동화이야기 《나비와 수탉》도 항일혁명투쟁의 강성 어렵고 순엄한 시기 형편속에서 대한 인성을 잃고 있는 대원들에게 아버지수령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이다.

위한 장운섭, 장대길동무들, 그런 탐구의 결과로 어린이들의 지능개발그림책 하나 하나의 종자를 찾아쥐었을 때 그들은 하늘, 땅, 바다를 한가슴에 안은것처럼 기쁘고 보람했다.

장대길동무는 최근년간 세계발견추세에 맞게 어린이들의 지능개발과 정식교육에 중심을 둔 《어린이지능개발》(1~20)과 《무엇이든지 알고싶어요》, 《외국그림동화》(전 60권), 《나 혼자 해요》(전 32권) 등을 편수 집필 및 편집하였다. 그가 집필과 편집, 장정하고 그림을 맡아한 전 10권으로 된 지능그림책 《아시아는 지요》를 비롯하여 여러 어린이지능개발도서들은 해학적인 그림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적절하게 결합한것으로 하여 아이들의 관찰력, 사고력, 상상력, 창조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있으며 어린이들이 흥미 나서 책을 읽기며 많은 지식을 얻게 하는 친근한 스승으로, 생활의 벗으로 되고있다.

장운섭동무는 도덕교양을 주제로 하는 아동그림책들도 창작하여 아이들의 사상정신적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있다.

장운섭, 장대길동무들의 지성과 다분박식의 산물인 아동그림책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애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성의 연새를 달아주어 그들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래일로 힘차게 떠밀고있다.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은 장운섭동무의 심장에 호모와 충정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렸고 그것은 동화그림책창작의 큰 힘으로 되었다.

그림책 편집부 성원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장대길동무는 어린이지능개발도서를 더 많이 만들라고 하신 그의 말씀에 높이 받들고 단 두달동안

《어린이지능개발》 11권부터 20권 까지를 새로 창작완성하였으며 그를 포함한 수백권의 동화그림책 및 어린이지능개발도서들을 동해바다가에 아이들의 궁중으로 일떠선 원산속아원, 애육원에 보내주었다.

장운섭, 장대길동무의 세번째 대인 13살 난 장진 역시 미술공부에 전념하고있고 그의 가슴속에는 다음세대 어린이들의 두뇌개발은 지기가 많겠다는 엄청난 꿈이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한층 특신으로 산 세대의 유명한 동화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외롭지 않다. 동화창작이 나의 안해이고 작품은 나의 자식이다. 내 작품을 사랑하는 아이들도 모두 내 자식들이다.》

하지만 그 동화작가도 아동그림책창작의 길을 쫓듯이 이어가는 이 땅의 한 미술가 대결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부러움을 금치 못할것이었다.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들려주신 옛말에 기초한 동화그림책창작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장운섭동무의 열정적인 모습은 아들 장대길의 눈에 선명하게 비쳤다.

어느날 장운섭동무는 중학생인 대결이가 자제로 만든 그림책들을 마추하게 되었다. 일반학습장에 연필로 정성껏 그림을 그리고 밑에는 글대본까지 바친 그 《그림책》을 내놓으니 대결이도 말했다.

《나도 크면 아버지처럼 그림책창작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온 나라 아이들의 책장을 내가 만든 그림책으로 꼭 채우겠어요.》

그때 장운섭동무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아들이 다섯살 나던 때의 일이 떠오랐다. 그날 밖에 놀러 나간 대결이가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아 찾아나갔더니 대결이는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온 아바트드 템플 빙 둘러싸고있는중이었다. 자동차, 원숭이, 곰, 연필, 꽃...

장운섭동무는 미술재능이 뛰어난 아들에게 자기뉘를 이어 아동그림책창작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번도 말한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애 대한 매혹과 확신을 안고있은 장대길동무는 자기의 후는 꿈을 아버지의 인성에 합쳐놓았던것이다. 부모의 교양에서 백번천번 말로 가르치는것보다 더 감화력이 큰것은 자기의 눈과 마음에 부모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비끼는것이었다.

아버지가 미술가라면 아들도 미술가일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가며 아동그림책창작이라는 하나의 직종에 종사하는것은 결코 하고난 본능과 취미, 유전학적 요인으로만 설명할수 없다.

그것은 제정이나 한가정을 맺든도 효성만으로 도저히 이어질수 없는 애국의 역센 피끓기이며 이 땅 어디서나 즐거우게 이지는 충정의 대, 혁명의 대이다.

정암미술대학을 졸업한 장대길동무는 몇해전 교육도서출판사에서 기자활동을 시작하면서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들려주신 옛말을 종합적으로 담은 동화그림책목록을 만들 결심을 하였다. 인제인가 아버지가 걸었던 한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간직되어있기때문이다.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들려주신 옛말과 그림책도 조선의 아동그림책창작자들이 민족의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야 할 최대의 국보이다.》...

아들의 결심을 장운섭동무는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전 60권에 달하는 《백두산위인들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그림책》을 4년이라는 짧

은 기간에 사상에술적품위가 있게 완성하기까지 장운섭, 장대길동무들이 기울인 정력과 땀을 다 이야기할수 없다. 이 사업, 땅, 바다를 한가슴에 안은것처럼 기쁘고 보람했다.

장대길동무는 최근년간 세계발견추세에 맞게 어린이들의 지능개발과 정식교육에 중심을 둔 《어린이지능개발》(1~20)과 《무엇이든지 알고싶어요》, 《외국그림동화》(전 60권), 《나 혼자 해요》(전 32권) 등을 편수 집필 및 편집하였다. 그가 집필과 편집, 장정하고 그림을 맡아한 전 10권으로 된 지능그림책 《아시아는 지요》를 비롯하여 여러 어린이지능개발도서들은 해학적인 그림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적절하게 결합한것으로 하여 아이들의 관찰력, 사고력, 상상력, 창조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있으며 어린이들이 흥미 나서 책을 읽기며 많은 지식을 얻게 하는 친근한 스승으로, 생활의 벗으로 되고있다.

장운섭동무는 도덕교양을 주제로 하는 아동그림책들도 창작하여 아이들의 사상정신적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있다.

장운섭, 장대길동무들의 지성과 다분박식의 산물인 아동그림책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애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성의 연새를 달아주어 그들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래일로 힘차게 떠밀고있다.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은 장운섭동무의 심장에 호모와 충정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렸고 그것은 동화그림책창작의 큰 힘으로 되었다.

그림책 편집부 성원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장대길동무는 어린이지능개발도서를 더 많이 만들라고 하신 그의 말씀에 높이 받들고 단 두달동안

《어린이지능개발》 11권부터 20권 까지를 새로 창작완성하였으며 그를 포함한 수백권의 동화그림책 및 어린이지능개발도서들을 동해바다가에 아이들의 궁중으로 일떠선 원산속아원, 애육원에 보내주었다.

장운섭, 장대길동무의 세번째 대인 13살 난 장진 역시 미술공부에 전념하고있고 그의 가슴속에는 다음세대 어린이들의 두뇌개발은 지기가 많겠다는 엄청난 꿈이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한층 특신으로 산 세대의 유명한 동화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외롭지 않다. 동화창작이 나의 안해이고 작품은 나의 자식이다. 내 작품을 사랑하는 아이들도 모두 내 자식들이다.》

하지만 그 동화작가도 아동그림책창작의 길을 쫓듯이 이어가는 이 땅의 한 미술가 대결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부러움을 금치 못할것이었다.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들려주신 옛말에 기초한 동화그림책창작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장운섭동무의 열정적인 모습은 아들 장대길의 눈에 선명하게 비쳤다.

어느날 장운섭동무는 중학생인 대결이가 자제로 만든 그림책들을 마추하게 되었다. 일반학습장에 연필로 정성껏 그림을 그리고 밑에는 글대본까지 바친 그 《그림책》을 내놓으니 대결이도 말했다.

《나도 크면 아버지처럼 그림책창작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온 나라 아이들의 책장을 내가 만든 그림책으로 꼭 채우겠어요.》

그때 장운섭동무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아들이 다섯살 나던 때의 일이 떠오랐다. 그날 밖에 놀러 나간 대결이가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아 찾아나갔더니 대결이는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온 아바트드 템플 빙 둘러싸고있는중이었다. 자동차, 원숭이, 곰, 연필, 꽃...

장운섭동무는 미술재능이 뛰어난 아들에게 자기뉘를 이어 아동그림책창작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번도 말한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애 대한 매혹과 확신을 안고있은 장대길동무는 자기의 후는 꿈을 아버지의 인성에 합쳐놓았던것이다. 부모의 교양에서 백번천번 말로 가르치는것보다 더 감화력이 큰것은 자기의 눈과 마음에 부모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비끼는것이었다.

아버지가 미술가라면 아들도 미술가일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가며 아동그림책창작이라는 하나의 직종에 종사하는것은 결코 하고난 본능과 취미, 유전학적 요인으로만 설명할수 없다.

그것은 제정이나 한가정을 맺든도 효성만으로 도저히 이어질수 없는 애국의 역센 피끓기이며 이 땅 어디서나 즐거우게 이지는 충정의 대, 혁명의 대이다.

정암미술대학을 졸업한 장대길동무는 몇해전 교육도서출판사에서 기자활동을 시작하면서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들려주신 옛말을 종합적으로 담은 동화그림책목록을 만들 결심을 하였다. 인제인가 아버지가 걸었던 한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간직되어있기때문이다.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들려주신 옛말과 그림책도 조선의 아동그림책창작자들이 민족의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야 할 최대의 국보이다.》...

아들의 결심을 장운섭동무는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전 60권에 달하는 《백두산위인들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그림책》을 4년이라는 짧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들려주신 옛말에 기초한 동화그림책창작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장운섭동무의 열정적인 모습은 아들 장대길의 눈에 선명하게 비쳤다.

어느날 장운섭동무는 중학생인 대결이가 자제로



# 《싸드》의 남조선배비가 돌아올 엄청난 후과

지금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인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미국무장관 케리와 미합동참모본부 부의장, 미국회 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 등 미행정부와 군부, 국회의 고위인물들이 자막을 나서서 《싸드》의 남조선배비요성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미국이 남조선피피당과 함께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한다는 것을 확정된 《4대전략원칙》이라는 것까지 수립하겠다고 한다. 여론들은 미국이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이미전부터 기정사실화하였으므로 지금은 배비절차만 남겨놓고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핵 및 미사일위협》타령을 끈질기게 늘어놓고있는 것은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술한 핵무기를 배비해놓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여놓고 하면서도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가 평화를 《위협》한다고 미친듯이 떠들어대는데는 과연 미국당국자들만이 예외는 없는 것두리다.

미국은 남조선피피당에게 《싸드》의 남조선배비는 물론 그 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강박해나서고 있다.

오바마정권은 《싸드》를 비롯한 첨단 무장장비들을 생산하고있는 군수업체들로부터 판매시장을 확대할데 대한 압력을 받고있다 그 한다.

미행정부가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려는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바로 군수업체들의 배를 늘려주자는 데 있다.

미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한사코 배비하려는 또 다른 중요목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대국들의 영향력 세력권이 무반히 확대되고 그로 하여 지역에서 오랜 기간 유지해온 그들의 패권적 지위가 위태로워지고있는데 당황해한 미국은 어떻게 해서나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압박하고있다.

그 실형에서 선자적으로 내세우고있는

것이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지역대국들의 군사적공격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사일방위체계를 수립하여 확고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지 않고서는 지역을 정치군사적으로 통제할수 없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조선반도는 미국이 제창하는 세계제2차대전 이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핵무기까지도 전진시켰다. 《싸드》를 조선반도와 가까운 팔도에 배비한것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에 기어 배비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강행하는 《싸드》의 남조선배비가 돌아올 후과는 매우 엄청하며 벌써부터 그 조짐이 나타나고있다.

미국이 피피들을 강박하면서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려는 시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군비경쟁, 첨단무기개발경쟁을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미국이 개발완성하고있는 《싸드》는 결코 우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기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대국들을 겨냥한것이다.

미국이 피피들을 강박하면서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려는 시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군비경쟁, 첨단무기개발경쟁을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미국이 개발완성하고있는 《싸드》는 결코 우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기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대국들을 겨냥한것이다.

미국이 피피들을 강박하면서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려는 시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군비경쟁, 첨단무기개발경쟁을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미국이 개발완성하고있는 《싸드》는 결코 우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기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대국들을 겨냥한것이다.

이 나라도 개발하고있는 구조속속미사일이라는 개발하고있는 한 나라는 최근에 구조속속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그 구조속속미사일은 발사된 후 《오격》을 피할수 있는 《극도의 기동》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미사일방위체계를 필사적으로 완성하려 할수록 다른 대국들은 그에 도전하여 오격하기 힘든 최첨단 무기들을 개발하는데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전진배비하는데 미국대사들의 최첨단타격무기개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것은 불보듯 뻔하다. 미국이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끝내 강행한다면 남조선지역은 대국들의 힘의 대결장소로, 희생물로 되고 조선반도는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도 될수 있다.

미국은 《싸드》가 우리 주변나라들을 겨냥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자국과 우리 주변나라들사이의 전략적균형을 철대로 파괴하지 않는다고 떠벌이고있다.

그것은 우리 주변나라들의 불만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꾀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전에 미사일방위체계이 최고라고 하는 미국의 두 전문가가 《싸드》의 남조선배비가 조선반도주변 나라들과의

# 여러 나라에서 기년 행사 진행

역사적인 6.15북남 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몽골에서는 기념강연회, 핀란드에서는 집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도이쾰란드에서는 토론회가 6월 12일과 13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그려져있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보존들이 전시되었다. 또한 백두산출생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작품들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장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몽골 전 의무상교문은 6.15북남공동선언을 6.15북남공동선언을 조선통일의 가장 훌륭한 길을 밝혀주었다.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한 이 선언은 반드시 리행되어야 할것이다고 언급하였다.

몽골주제사상-선군사상연구회 회의장은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을 조선통일의 가장 훌륭한 길을 밝혀주었다.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한 이 선언은 반드시 리행되어야 할것이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는 이 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일심단결로 승리할것은 내 조국》이 상영되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고려인 통일연합회(로씨야고려연)가 6월 14일 모스크바에서 기념모임을 가졌다.

김철성 로씨야고려연 위원장과 동포단체대표들, 재로동포들 그리고 로씨야로조선친선협회성원들, 조선문제전문가들이 기념모임에 참가하였다.

로씨야주제 우리 나라 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모임에서는 우리 나라 대사의 축하발언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6.15공동선언이 태어나게 된 력사적배경과 선언의 내용, 그 리행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최근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의 방학책동으로 북남관계가 최악의 사태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실현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6.15공동선언은 반드시 고수, 리행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재로동포들과 로씨야인들이 축하공연을 하였다.

중앙 《아리랑》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우리 나라 노래 《우리는 하나》, 《위파람》, 《지식자말이다》로 평양이, 무용 《조국의 진달래》, 《머물기》로 로씨야노래와 무용 등 다양한 공연이 올랐다.

우리는 이 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 조선에 대한 미국의 세군력투입을 폭로토죄한다

프랑스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6월 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세군력투입을 폭로토죄하는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미국방성이 남조선에 극히 위험한 탄저균을 비밀리에 반입한 사건을 계기로 치밀한적인 투쟁을 행하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지위형정수정문제가 다시 떠오르고있다.

미국은 탄저균을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배달하여 세군력투입을 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사실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이 두려워 뒤늦게야 형식적인 사과놀음을 연출하였다.

미국이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많은 무력을 주둔시키고있지만 저들의 무장체계건설, 군부대급수, 위험한 무기반입정형 등을 통보해주지 않고있는 대상은 오직 남조선뿐이다.

미국은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남의 나라 땅에 위험천만한 생화학무기까지 제멋대로 끌어들이는 나라이다.

미국이 이번엔 처음으로 탄저균실험을 했다고 변명하지만 1998년부터 남조선에 탄저균과 관련한 연구소를 설치한것을 놓고볼 때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을것이며 실험

6.25-7.27만미공 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로씨야신문 《폼소플스카야 브라우나 울라지 보스토크》가 6월 24일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경축하는 우리 인민군인들의 사진과 함께 《조선전쟁의 교훈, 미국의 힘은 만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65년전 6월 25일은 미국이 창건된 조선인민공화국을 파괴하려던 전쟁을 도발한 날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이었으며 남조선피피군을 돌격대로, 총알받이로 내세웠다. 미국의 군사기술적우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하고 한사칼같이 일면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해낼수 없었다. 조선전쟁에서 미국의 《강대성》의 위상이 어찌 감히 깨어졌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힘으로 그 어느 나라나 짓

6.25-7.27만미공 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로씨야신문 《폼소플스카야 브라우나 울라지 보스토크》가 6월 24일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경축하는 우리 인민군인들의 사진과 함께 《조선전쟁의 교훈, 미국의 힘은 만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65년전 6월 25일은 미국이 창건된 조선인민공화국을 파괴하려던 전쟁을 도발한 날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이었으며 남조선피피군을 돌격대로, 총알받이로 내세웠다. 미국의 군사기술적우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하고 한사칼같이 일면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해낼수 없었다. 조선전쟁에서 미국의 《강대성》의 위상이 어찌 감히 깨어졌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힘으로 그 어느 나라나 짓

# 미국의 힘은 만능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신문과 인터넷에 글 게재

프랑스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6월 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세군력투입을 폭로토죄하는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미국방성이 남조선에 극히 위험한 탄저균을 비밀리에 반입한 사건을 계기로 치밀한적인 투쟁을 행하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지위형정수정문제가 다시 떠오르고있다.

미국은 탄저균을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배달하여 세군력투입을 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사실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이 두려워 뒤늦게야 형식적인 사과놀음을 연출하였다.

미국이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많은 무력을 주둔시키고있지만 저들의 무장체계건설, 군부대급수, 위험한 무기반입정형 등을 통보해주지 않고있는 대상은 오직 남조선뿐이다.

미국은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남의 나라 땅에 위험천만한 생화학무기까지 제멋대로 끌어들이는 나라이다.

미국이 이번엔 처음으로 탄저균실험을 했다고 변명하지만 1998년부터 남조선에 탄저균과 관련한 연구소를 설치한것을 놓고볼 때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을것이며 실험

# 단편 패배자의 《치적》사상

미국에게 1954년 이후 남조선에서 죽은 미군을 추모하기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그것을 요약하면 조선전쟁이후 빈번히 벌어진 북조선파의 군사적총돌과정에 적지 않은 미군이 목숨을 바친것만큼 그들의 이름을 새긴 표석을 알릴것으로 결정되어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남의 땅에 기여들어 강도질을 일삼다가 황천객이 된자들의 《치적》사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조미대결에서 자랑할것이 없거나 없었던 이런 패배한 놀음을 벌려겠다는가.

우리의 대결에서 사병들을 고무수용할수 있는 지평을 개척사라도 전제내보려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안해냈다는것이 바로 십자가의 총장들을 써먹는것이다.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62년세월이 흘렀다. 허나 이 땅에서는 《투에블로》조선, 《EC-1 2 1》대형간첩비행기 사건, 판문점사건, 직속기침입사건과 같이 미호전관들의 군사적도발이 끊이지 않고있다.

미국이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많은 무력을 주둔시키고있지만 저들의 무장체계건설, 군부대급수, 위험한 무기반입정형 등을 통보해주지 않고있는 대상은 오직 남조선뿐이다.

미국은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남의 나라 땅에 위험천만한 생화학무기까지 제멋대로 끌어들이는 나라이다.

미국이 이번엔 처음으로 탄저균실험을 했다고 변명하지만 1998년부터 남조선에 탄저균과 관련한 연구소를 설치한것을 놓고볼 때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을것이며 실험

# 미국부성의 《인권보고서》 배격

로씨야의무성 공식대변인 알렉산드르 루카체비치가 6월 26일 미국의 부당한 《인권보고서》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이 보고서가 진지하거나는 미국적인 권호시도 하나도 없으며 미국의 국제기구들과 인권옹호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로씨야의무성 인권문제담당 전전대 포스판텐 돌고브가 최근 한 라디오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부성의 《인권보고서》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의 《인권보고서》라는것은 남에게 해를 주기 위해 작성되었고도 그럴뿐 아니라, 조선국가들을 혼시하려는 이러한 보고서는 로씨야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이미 신문이 난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현시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대결을 확립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이 더욱 로물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방장관 카터가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을 행차한것이 이를 웅변하고있다.

카터는 헬만과 인디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단장을 비롯한 정부들을 지원하고 협조를 약속한다. 군사기술협정에 조인한다 어떤 대하 자기 나라의 무장장비에 대해 오히려 금세를 올렸다. 또한 필리핀과의 관계도 회색화한다느니, 싱가포르에 저들의 군함들을 전개한다느니 하며 분주당도 괴렸다.

미국의 이러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정세분석가들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부산스럽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번 미국방장관의 행차는 아시아나라들의 무기시장을 개척하기 위한것이였다것이 전문가들의 일침한 견해이다.

일리가 있는 소리이다.

미국경제의 골간은 군수산업이다. 미국경제는 헤이리수 없이 많은 침략전쟁들을 치르면서 최대로 군사화되었다. 그 과정에 군수와 군수산업은 밀착되어 되었으며 정치는 군수업체들의 손락에서 돌아나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정치의 실제적인

#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과학기술발전

아프리카동맹이 6월 23일 범아프리카총회대카라시회를 내울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내오게 되는 리사회에는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성원들과 대륙의 각경제단체, 종합대학 및 과학단체대표들이 망라되게 된다. 리사의 당면과업은 종합학회의 임무와 운영계획, 전략목표 등을 작성, 채택하는것이라고 한다.

클룬피해막이대책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클룬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정부는 올해에 나라의 12개 주에서 클룬이 남수들과 시급히 소개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있다. 또한 클룬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여지고있다. 환경보호 노력

남아프리카나라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있다. 앙골라,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 나라들의 환경 및 관광개발이 의의를 열고 서로 경쟁을 접하고있는 지역의 자연보호수단을 하나하나씩 리용할데 리용할데 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총련적

이 28만 7 132km에 달하는 이 자연보호구에는 33개의 국립공원과 동물보호구, 산림보호구 등이 있다. 총련적



이런에서 원유시추설비 조립

# 자 연 고 해

방글라데시의 동남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해를 입고 있다. 무더기비로 큰물과 산사태가 일어나 6월 28일 현재 2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피해자는 수만명에 달하였다.

또한 도로들이 침수되어 자동차 운행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한편 네팔의 서부지역에서도 며칠째 무더기비가 계속 내려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 500여명의 살림집들이 물에 잠겨 쓰러졌다.

피해지역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파키스탄의 신드주에서 열파가 지속되어 막대한 인명손실이 일고있다.

주요건설국은 열파로 6월 28일 현재 약 1 3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났다고 예견되고 있다. 사망자의 35%가 여성들이라고 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 일본에서 집회

일본의 도쿄에서 최근 당국이 강행추진하는 안전보장법안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국회청사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3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법안을 철회하라》, 《아베는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현 당국자를 일본을 무장분쟁으로 이끌어가는 무장조작자, 규탄하였다.

후련은 소해정 등 7척의 함정들과 500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후련에서 해상 《자위대》대원들이 소해정들을 타고 바다물면에 떠있는 기뢰에 폭약을 설치한 후 터뜨려 해제하는 놀음을 벌여놓았다.

【조선중앙통신】

# 미국과 일본의 로물화되는 침략전쟁준비책동

△ 미국이 우주군사화책동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미국방성은 우주군사에서 일할수 있는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센터를 6개월안에 내세워 만들고 밝혔다. 이것은 우주에서 군사적목적우세를 강화하여 패권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한편 미국이 일본을 거점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적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강화하기 위해 무장장비증강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6월 18일 미국은 해군함대를 일본의 가나가와현 요코사키지역에 끌어다놓았다.

함선에는 항공모함타격정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최신예비항공모함들을 비롯한 무장장비들이 탑재되어있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대한 정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정찰기들을 전진배비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은 올해안으로 팔도에 있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를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 일본에서 집회

일본의 도쿄에서 최근 당국이 강행추진하는 안전보장법안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국회청사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3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법안을 철회하라》, 《아베는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현 당국자를 일본을 무장분쟁으로 이끌어가는 무장조작자, 규탄하였다.

후련은 소해정 등 7척의 함정들과 500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후련에서 해상 《자위대》대원들이 소해정들을 타고 바다물면에 떠있는 기뢰에 폭약을 설치한 후 터뜨려 해제하는 놀음을 벌여놓았다.

【조선중앙통신】

#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과학기술발전

아프리카동맹이 6월 23일 범아프리카총회대카라시회를 내울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내오게 되는 리사회에는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성원들과 대륙의 각경제단체, 종합대학 및 과학단체대표들이 망라되게 된다. 리사의 당면과업은 종합학회의 임무와 운영계획, 전략목표 등을 작성, 채택하는것이라고 한다.

클룬피해막이대책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클룬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정부는 올해에 나라의 12개 주에서 클룬이 남수들과 시급히 소개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있다. 또한 클룬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여지고있다. 환경보호 노력

남아프리카나라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있다. 앙골라,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 나라들의 환경 및 관광개발이 의의를 열고 서로 경쟁을 접하고있는 지역의 자연보호수단을 하나하나씩 리용할데 리용할데 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총련적

이 28만 7 132km에 달하는 이 자연보호구에는 33개의 국립공원과 동물보호구, 산림보호구 등이 있다. 총련적

#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과학기술발전

아프리카동맹이 6월 23일 범아프리카총회대카라시회를 내울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내오게 되는 리사회에는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성원들과 대륙의 각경제단체, 종합대학 및 과학단체대표들이 망라되게 된다. 리사의 당면과업은 종합학회의 임무와 운영계획, 전략목표 등을 작성, 채택하는것이라고 한다.

클룬피해막이대책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클룬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정부는 올해에 나라의 12개 주에서 클룬이 남수들과 시급히 소개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있다. 또한 클룬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여지고있다. 환경보호 노력

남아프리카나라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있다. 앙골라,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 나라들의 환경 및 관광개발이 의의를 열고 서로 경쟁을 접하고있는 지역의 자연보호수단을 하나하나씩 리용할데 리용할데 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총련적

이 28만 7 132km에 달하는 이 자연보호구에는 33개의 국립공원과 동물보호구, 산림보호구 등이 있다. 총련적